

[1] 아빠스를 세움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기준은, 공동체의 모두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치하여 선정한 사람이거나, 혹은 비록 공동체 가운데 적은 부분일지라도 더욱 건전한 의견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.

[2] (아빠스로) 세워질 사람은, 비록 공동체의 차례에는 마지막 자리에 있더라도, 생활의 공덕과 지혜의 학식을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.

[3]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, 만일 공동체 전체가 자기들의 악습들에 찬동하는 인물을 공모(共謀)하여 선출하였고, [4] 또 그 악습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그 지역 관할 교구의 주교에게나 이웃 아빠스들에게나 신자들에게 알려졌거든, [5] 악한 무리들의 음모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. 오히려 그들은 하느님의 집에 합당한 관리자를 세울 것이니, [6] 만일 순결한 의향과 하느님께 대한 열정으로 이 일을 행한다면 이에 대한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나, 만일 소홀히 한다면 그와 반대로 죄악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

[7] 아빠스로 세워진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짐을 받았으며 또 자기가 맡은 관리권에 대해 누구에게 험바치게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며, [8] (남을) 지배하기 보다는 유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

[9]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의 법에 정통함으로써 거기에서 “새것과 옛것을 골라낼” 줄 알아야 하며, 정결하고 절도있고 자비로울 것이며, [10] 언제나 “판결보다 자비를 더 낫게 여겨” 자신도 같은 (자비를) 받게 할 것이다.

[11] 악습은 미워하되 형제들은 사랑할 것이다. [12] 책벌함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할 것이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이니, 녹을 너무 지우려다 그릇을 깨뜨리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. [13]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항상 바라보며 “부러진 갈대를 꺾어버려서는 안된다”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.

[14]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악습을 기르도록 허락함이 아니고, 오히려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방법에 따라 현명하고 사랑의 (태도로) 악습을 근절시키라는 말이다. [15] 그리고 두려움을 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힘써야 한다.

[16] 부산떨거나 소심하지 말 것이며, 과격하거나 고집하지도 말고 질투하지 말며 너무 의심하지도 말 것이니, (그렇게 하면) 잠시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. [17] 자기의 명령에 있어서는 용의주도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다. (그 명령이) 하느님께 관계되는 일이 든 아니면 세속에 관계되는 일이든 분별있고 절도있어야 할 것이니, [18] “만일 내가 내 양의 무리를 심하게 몰아 지치게 하면 모두 하루에 죽어 버릴 것이다” 하신 성조 야곱의 분별력을 생각할 것이다.

[19] 이밖에도, (모든) 덕행들의 어머니인 분별력의 다른 증언들을 거울삼아, 모든 것을 절도있게 하여 강한 사람은 갈구하는 바를 행하게 하고, 약한 사람은 물러나지 않게 할 것이다.

[20] 무엇보다도 현재의 규칙을 모든 면에 걸쳐 준수함으로써 [21] 제때에 자기 동료 종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착한 종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할 것이니, [22] (말씀하시기를) “나는 분명히 말하지만, 주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”(라고 하셨기 때문이다).